

錦江 下流 笠浦 浦口聚落의 變化: 浦口聚落의 形成期 前後를 中心으로

방갑주*

The Change of Ippo Port Settlement in the Lower Geum River: Focusing on Formative Period of Port Settlement

Gabju Bang*

요약 : 본 연구에서 포구취락 변화는 일제 강점기 이전의 취락, 일제 강점기 이후 취락의 형성기(1910~1929)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이전을 살펴보면 1885년경 김해김씨가 입촌하여 촌락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899년 군산항의 개항은 금강 수운의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또한 입포 포구로의 수산물의 반입과 유통 증가는 이 지역의 변화에 점화 역할을 하였다. 포구 취락의 형성기를 살펴보면 입포 지역이 변화의 탄력을 얻게 된 것은 나루 기능과 마을에 어선의 출입이 많아지면서부터이다. 입포는 중심도로를 따라 가촌이 형성되었다. 입포에 어선 입항이 많아지면서 면사무소가 이전해 오고, 시장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근 지역과 입포 사이의 도로와 수운에 의한 접근성의 향상은 외해의 수산물과 내륙의 곡류에 대한 집산 기능을 강화시켰다. 또한, 일본의 국내 사정에 따른 곡물 수탈 정책은 입포의 미곡 집산 기능을 강화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입포 취락의 형성은 나루의 기능 강화, 수산물의 반입과 군산항의 개항 등이 입포 취락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입촌, 나루 기능, 수산물의 반입, 군산항의 개항, 수운, 집산 기능

Abstract :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port settlement has changed progressively since 1910 before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fter this period, the settlement had a formative period from 1910 to 1929. When it comes to the time before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ims of Gimhae entered the town and developed a village at 1885. The opening of Gunsan Port at 1899 became the new motive power to change the water traffic at Geum River. In addition, carrying marine products into the port and increasing goods' distribution changed this area a lot. As for the formation period of port settlement, intensified ferry function and increase of incoming and outgoing vessels changed Ippo dramatically. Strassendort was developed along the main street. A myeon office was located in Naseong-ri, Yanghwa-meyon at 1920. Then, as the number of incoming ships and the amount of fishes business were rising, the office moved to Ippo. This caused Ippo market to work as a genuine market. The access to the Ippo by the water traffic and new road had the gathering and distribution of the open sea marine product and inland grain far more intense. Through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formation of Ippo settlement intensified ferry function, and taking in marine product and opening Gunsan Port affected the formation of Ippo settlement.

Key Words : Town entrance, Ferry function, Marine product carriage, Opening of Gunsan Port, Water traffic, Gathering and distribution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ildasiil@hanmail.net)

I. 서론

1. 연구 목적

인류문명의 발달은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농경 및 수렵과 어패류를 채포하여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다. 금강은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금강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식생활의 원천으로 역할을 하여왔다. 양화면 입포리(笠浦里) 입포 포구는 백제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의 생활근거지로 활용되어 온 금강을 모태로 형성되었다. 입포 포구는 장항항(長項港)을 통해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 기능을 수행하였다(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572). 포구는 나루터 기능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요 도로와 하천이 만나는 결절점에 형성되었다.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교량의 건설이 어려웠던 시대에 사람과 화물은 나룻배에 의해 강을 건넜다. 나루터가 분포하는 곳은 정기 시장과 깃별장이 서게 마련이어서 나루터를 겸하는 포구는 시장 기능을 갖고 있었다. 하천의 유량 변동에 따라 수심이 변화하므로 수운이 원활한 시기에는 시장이 자주 열렸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여러 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 포구는 단순히 사람과 화물이 통과하는 장소가 아니라 포구에 배가 접안하는 때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서는 정기 시장에 물자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포구의 배후지에 이와 관련된 기능이 주요 도로를 따라 입지한다. 포구의 배후지에서 하안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양쪽에 주로 주거보다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 배후에 일반 가옥이 배열되어 있다. 포구의 규모에 따라 큰 포구에서는 포구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하역 시설, 창고 등이 나타나지만, 작은 포구에는 가옥이 몇 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포구 객주로부터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소매상인과 보부상들은 소매의 형태로 인근 농가 혹은 정기 시장의 범위에 분포하는 다른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겼다. 포구를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발달하면서 객주, 여각 등의 새로운 상인층이 등장하였다.

하천의 수운 교통 발달과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금강의 수운과 포구를 주제로 하여 발표한 연구물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지리학이 발달하려면 다양한 지역 계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지역지리학이 성장해야 한다. 어떤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일반법칙을 추구하는 계통지리학도 더불어 발달할 것이다.

금강을 따라 위치하는 부강, 공주, 강경과 같은 고차적 포구의 연구¹⁾는 진척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입포, 옹포 등의 중차적 포구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저차 포구의 연구가 미시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질 때 지역성 탐구는 물론이고 나아가 금강 수운권의 연구가 완성될 것이다.

2. 연구 지역 및 방법

본 연구는 금강 하류의 하항 중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지역이다(그림 1 및 2). 금강 하류 유역에 속하는 입포, 옹포 등보다 고차 포구인 강경이나 군산은 이미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입포, 옹포와 같은 저차 포구는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더욱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다. 넓은 지역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좁은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과거에 육상교통보다는 포구와 외해, 포구 간을 이어주는 수운의 발달이 교통의 중심을 이루었다. 하천 연안에 위치하는 이와 같은 수운에 의하여 큰 수운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우리가 하천 유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하천을 이용한 수운이 지역의 결합 매체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을 연구 단위로 삼는 지리학은 하천 유역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천유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단위이고, 이를 연구지역으로 삼는 것은 지역연구의 보편적인 방법론의 하나이다. 이 지리적 단위는 유역 내 주민들의 생활을 결속시키고 지역성 형성을 도모한다. 특히 수로망은 수운교역관계와 중심지-배후지간 연결을 효율적으로 담당하는데, 이러한 유역분지의 특징은 하천유역권의 지역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 단위인 하천 유역은 그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규모를 달리하는 지역을 형성하지만 보다 넓은 동일 문화권의 형성은 수로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천 연안의 축적지는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와 생산의 주요 기반이 되며, 전산업시대에 하천은 원거리교역을 담당함으로써 상하류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그림 1. 연구 지역과 그 주변 지역(1:50,000)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2.



그림 2. 연구 지역(1:5,000)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2.

한 중요한 요소였다. 자연 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하천은 범람에 의해 삶의 터전인 충적지를 형성하고 하천의 흐름은 교통을 발생시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하천 유역에 대한 관심은 지리학계와 역사학계는 동일

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점도 발견된다. 역사학계 수운연구의 주요 논점이 유통구조의 해명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지리학 분야와 같지만, 주로 품목별 상품유통의 단계별 과정과 담당주체를 구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

문에 지역에 대한 관점이 다소 결여된 점이 다르다. 양학계의 더 두드러진 차이는 지리학계가 내륙의 하천수운에 대한 성과를 보였다면, 역사학의 연구물들은 주로 한성과 서해연안의 외방포구 간 원거리교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김종혁, 2001, 10).

연구 지역의 포구도 하천 수운과 관련하여 접근해야 한다. 포구라는 지형적인 특징은 선박의 정박에 유리하여 일찍이 선박의 왕래가 잦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지역은 금강 하류 지역에 나타나는 입포 포구로 제한한 이유는 하류 지역에 분포하는 포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락의 형성, 포구의 기능 등이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 연구 지역의 관련 문헌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특히 촌로와 지역주민의 구술에 따른 구술자료 활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연구 지역의 군지, 지형도, 행정 기관 발행 자료 등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여기서 취락 발달의 고찰은 연구 지역 포구취락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을 기준하여 일제 강점기 이전의 취락, 일제 강점기 이후 취락의 형성기(1910~1929)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지역의 개관

입포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시에 하천으로 운반되던 물질이 퇴적하여 형성된 하천축적평야에 입지하고 있다. 주변 지형을 보면 북동-남서 방향으로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남동 방향은 금강 본류가 흐르고 있으며 북서 방향으로 삭박 평탄면이 나타난다.

범람원은 홍수 때에 자연제방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범람이 발생한다. 범람원상에 있는 촌락은 홍수 때에 침수의 피해가 나타남으로 이를 대비하여 가옥을 건축할 때 터돋음을 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입포는 홍수가 발생할 때 금강의 물이 범람하여 형성한 배후습지를 개간

하여 조성된 마을이다. 일반적으로 대하천이 흐르는 하류 연안의 범람원에서 주변보다 다소 고도가 높은 자연제방에 취락이 형성되지만, 입포 마을은 자연제방에 일부 취락이 분포하고 대부분 매립한 배후습지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어떤 지역의 지명은 그 지역의 자연적 혹은 인문적인 환경을 반영한다. ‘입포(笠浦)’라는 지명은 포구의 모양이 삿갓모양과 같아하여 ‘삿갓림(笠)자’와 또 ‘강가’라 하여 ‘물가 포(浦)자’를 써서 ‘입포(笠浦)’라 부르게 되었다.

입포 포구가 언제 발생되었는지 그 연원을 추정해 보기 위해 문헌과 지도를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에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이라는 요람을 1912년과 1917년 두 차례에 간행한 바 있다. 일제는 강압으로 대한제국을 병탄한 후 그들의 행정에 유리하도록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1914년²⁾ 3월과 4월에 실시하였다. 1912년의 요람은 그 통폐합이 있기 이전의 자연취락에 대한 고유어 지명과 행정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1912년의 선간본과 1917년의 후간본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통폐합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표 1)(朝鮮總督府, 1912, 197-200).

1871년의 호서읍지에 입포리(笠浦里)가 기록되어 오다가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보면 입포리가 상입포리와 하입포리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구 지역인 하입포리가 적어도 1871년과 1912년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다. 한편 1865년에 발행된 대동여지도에는 입포 주변의 다른 포구들은 표기되어 있지만 아직 입포 나루는 나타나 있지 않다(그림 3). 이것은 입포 나루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인접 지역의 임천군 지곡면(紙谷面) 남당리(南塘里)에 있었던 나루가 입포 포구로 이전해온 시기가 곧 김해 김씨의 입촌 시기와 동일한 1880년대 중반으로 하입포 마을의 태동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 군폐합과 그 이전의 입포리 소속 군면

文獻 및 郡廢合	郡	面	里
1871年 湖西邑誌	林川郡	大洞面	笠浦里 木手洞里 犬巖里 元堂里 內項里
1912年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林川郡	大洞面	上笠浦里 下笠浦里 木樹洞 犬巖里 元堂里 內項里 檢城里 元山里
1914年 郡廢合	扶餘郡	良化面	笠浦里 草旺里 五良里 足橋里 松亭里 碧龍里 水原里 上村里 時音里 內城里 元堂里 岩樹里

출처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30-31.



그림 3. 대동여지도상의 입포 포구 취락 일대
출처 : 대동여지도, 1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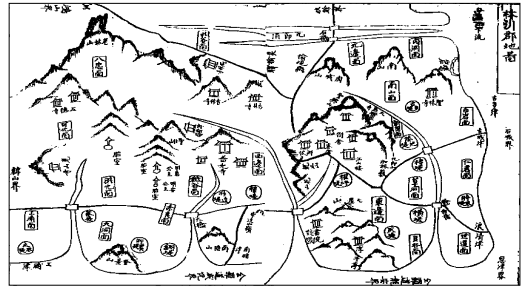


그림 4. 임천군 지도(1871)
출처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30.

1871년의 임천군 지도에서 남당산(南塘山) 우측에 보이는 남당진(南塘津)은 임천(林川)과 함열(咸悅)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나루였다. 남당산 좌측 만입한 곳이 현재의 입포천이다. 당시 지도에 입포 나루는 나타나 있지 않다(그림 4). 이것은 1871년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입포 나루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인식되는 단서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입포는 선사 사회에 인간이 거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입포는 1885년경에 김해 김씨가 남당진에서 입포로 나루를 옮겨오면서 부락을 형성해 나갔으며 점차적으로 금강 수로를 통해 들어온 수산물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마을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여러 문헌, 지도, 촌노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입포 포구의 형성 시기는 1890년부터라고 여겨진다.

일제강점기 입포 포구에 수산물을 실은 배가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등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사진 1). 포구로 반입된 수산물 유통은 전적으로 객주의 경매를

통하여 상인에게 인도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객주와 선주, 객주와 상인 간에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관행으로 여겨졌다.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당시에 입포 시장 안에 신흥옥, 일미식당, 함열옥, 대홍옥 등의 술집이 많이 있었고, 개도 지전(紙錢)을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기도 했었다. 이렇듯 촌락의 역사적 변화는 시대적 단면마다의 특징적인 형태 형성 조건의 작용에 의한 변화가 수반되었다(정진원, 1991, 25).

II. 금강 하류 입포 포구 취락의 변화

1. 일제 강점기 이전 입포 포구 취락

1) 나루기능 발생 이전

입포와 인접한 초왕리(草旺里)에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임천면(林川面), 충화면(忠化面), 양화면(良化面)의 접점에 위치하는 계무산(武帝山)의 남측구릉 말단부로 초왕 1리 마을의 뒷산이다. 고분군의 우측으로 누르개재 산성이 보이며, 전면에는 초왕리 마을의 넓은 농경지가 전개되고 있다. 고분은 무제산의 말단부인 해발고도 30~50m의 구릉사면에 분포하며 현재 외견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는 종전까지 노출되어 있던 고분석재가 대부분 유출된 까닭이다. 이곳의 고분은 활석, 판석조의 황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다(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9, 99).

초왕리 고분군은 그 주변에 일찍이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고분이 형성될 당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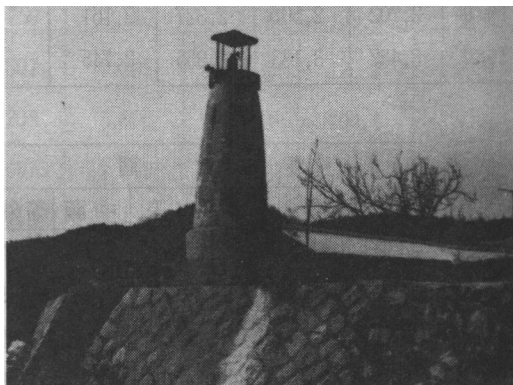


사진 1. 강경어업협동조합 입포지소의 등대
출처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572.

하입포는 지금처럼 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제방 시설이 미비하여 금강의 범람이 빈번하였을 것이므로 마을의 형성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입포는 나무 기능이 이전해 올 때 까지도 인간이 거주해온 역사적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마을이 형성되면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방지가 이루어져 자연 환경으로부터 거주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가 적어야 한다. 하입포는 범람원 지형의 배후습지여서 토목 기술의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인위적으로 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어려웠다. 지형이 습지이고 홍수가 잦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촌락을 형성하기에는 부적합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하입포 마을과 가까운 곳인 초항리에 돌방무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찍이 초항리 고분에 묻힌 사람들이 금강과 관련을 가지면서 하입포의 입포천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가 하입포에 형성되지 못하고 초항리에 형성된 것은 금강의 여름철 홍수에 의한 범람의 영향 때문에 침수를 피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천 연안이 아닌 초항리와 같은 장소에 취락이 입지하였다.

2) 나무 기능의 발생과 원초적 경관

1880년대 중반 이전 입포 포구는 촌락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입포는 1885년경 김해김씨가 입촌하여 촌락을 이루기 시작하였다(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1244). 입포 번영회는 입포 개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입촌한 김해김씨의 역할과 함께 입포의 개간을 진척시키고, 단시일에 마을을 형성하도록 노력한 조직이었다³⁾.

촌락은 본래 자연촌을 의미한다. 자연촌은 마을의 기원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은 선조들이 입향하여 자손이 불어남에 따라 성장한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 영역이다(김충환, 1992, 29).

하입포가 불리한 자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주하게 된 배경은 나무의 기능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다리의 건설이 어려웠던 시대에 나룻배는 지역 간의 거리 극복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금강 하류 지역에는 입포, 옹포, 나포 등에 여러 개의 나무가 분포하였다. 이렇듯 하입포는 처음부터 배후습지가 개간되어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나무의 기능이 먼저 생겨났다.

입포와 이웃한 남당은 일찍부터 나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곡면 남당진에 있던 나무의 기능이 입포로 이전한 것은 1880년대 중반이다. 당시 상입포 사람들은 강경, 군산, 익산 등으로 이동할 때 인근에 있는 남당진을 이용하였다. 상입포 사람들이 남당진을 이용할 때 불편하여 마을 가까이에 독자적으로 나무를 운영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영화라는 사람이 관청의 도움을 얻어 새롭게 입포 나무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입포는 금강에 연안에 있는 포구 지역이다(사진 2 및 3). 입포 나무는 금강 건너 전북 익산시 옹포면 제성(帝城) 나무와 왕래하였다. 이 나무는 부여군 양화 지역과 익산시 옹포 지역을 이어주는 주요한 역할이지만, 특히 옹포를 비롯한 금강 연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입포 시장을 다닐 때 많이 이용하였다. 입포 나무는 용인산과 자연제방이 만나는 부근에 입지하였는데(사진 4), 이토의 충적이 적고 하천의 수심이 깊어 배를 하안에 안전하



사진 2. 입포 마을 전경

출처 : 2013. 5. 촬영.



사진 3. 입포 포구 전경

출처 : 2013. 5. 촬영.



사진 4. 입포 나루터

출처 : 2013. 5. 촬영
주 : 화살표 아래 부근이 나루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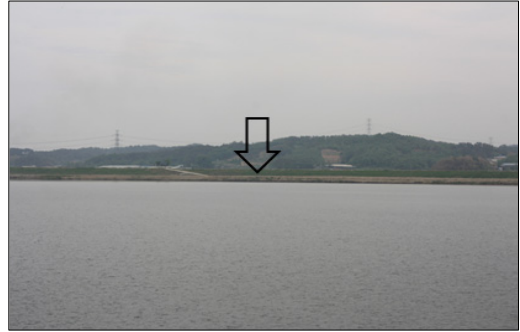


사진 5. 제성 나루터

출처 : 2013. 5. 촬영
주 : 화살표 아래 부근이 나루터임.

게 정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나무가 설치된 장소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때에 주변의 다른 곳보다 수심의 변화가 적어 배가 정박하기에 적합하다. 제성 나루는 입포 나루 맞은 편의 포인트 바에 위치하고 있다(사진 5).

입포와 제성 간의 나루를 통하여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였다. 금강 건너편 전라도 제성 나루를 통하여 사람과 물산이 입포로 유입되어 입포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입포에서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여 제성으로 건너갔다. 일제강점기에 제성에서 입포로 건널 때는 콩, 깨, 수수 등의 잡곡류를 운반하였고, 반대로 건널 때는 조기, 홍어 등 생선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고기류, 그 밖에 생활필수품이 이동하였다. 입포와 제성 간 나루는 입포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나루였다. 두 지역 간의 나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옹포면 제성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다. 1930년대 나룻배로 한 사람이 건너는 데 드는 비용은 10전이었다. 나루를 건너는 시간은 조류, 승선 인원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15분 정도 걸렸다. 입포~제성 간 다니는 나룻배의 소유는 양화면사무소였다. 나루에서 일하는 사공은 면사무소에 일정한 액수를 매월 납입하고 남은 나머지 수익으로 생활하였다.

나루를 이용할 때 표를 파는 곳은 별도로 없어서 표를 구입하지 않고 건너면서 현금으로 요금을 직접 내거나, 초봄에 계약하고 일 년간 이용한 후 연말에 쌀이나 보리로 한 번에 정산하였다. 나루를 건너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가능하였다. 그렇지만 제성에서 나루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3, 8일에 개시하는 입포 장날인데 하루에 10회 정도 되었고, 평일은

그 보다 적은 5~6회 정도였다. 나룻배에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는 큰 배의 경우 50명, 작은 배는 20명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에 옹포면 제성리는 실질적으로 군산 보다는 양화면 입포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제성 나루에서 입포 나루로 갈 때 나룻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기여한 바가 컸다⁴⁾.

이처럼 나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입포와 제성 간 나룻배를 부리는 사공이 거주하는 가옥 한 채가 최초로 금강에 인접한 용인산 기슭에 들어서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금강 본류로 유입하는 셋강 하구는 자연적인 만입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천혜의 정박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어선이 입항하였다. 어선이 나루 부근으로 입항하지 않고 셋강으로 입항한 이유는 배의 정박이 안전하고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셋강으로 정박한 어선의 어부들에 대한 숙식 제공과 생선 거래 알선의 필요성 때문에 셋강의 하류 부근에 또 한 채의 가옥이 들어섰다. 입항한 어선은 금강의 강변과 셋강을 따라 정박하였다. 포구에 배가 많이 정박할 때 강변 제방 아래에는 어선이 강물 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말뚝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다⁵⁾.

3) 군산항의 개항과 입포 포구의 변화

1899년 군산항의 개항은 금강 수운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외항과 내륙의 연결지점인 포구의 역할 증대를 예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중의 하나로 본류로 유입하는 셋강과 금강 연안에 분포하는 배후 습지의 개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 배후습지에 본류로 유입하는 자유곡류하천인 셋강이 흘렀고, 갈대가 무

성한 자연 상태로 존재하였다.

어떤 지역의 경관은 그것을 형성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경관형성력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생활주체가 지닌 문화적 특성도 그에 작용하는 역사·경제·정치적 및 사회적 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변화하게 된다.

금강으로 유입하는 입포천(笠浦川)은 지금과 같은 유로가 아니었다(그림 5 및 6). 지류천은 본류와 맞닿는 곳에서 시작하여 현재 공원이 조성된 매립지에서 입포리(笠浦里)와 암수리(岩樹里)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를 지나고 암수리 뒷산 자락을 감아 돌아 복서진하다가 오른쪽으로 회전하였다. 여기서부터 현재의 29번 국도인 한산(韓山)과 임천(林川) 간의 도로와 대략 평행하게 달리 어 국도를 연결하는 다리에서 머무른다. 다시 여기서 좌측으로 직각 회전하여 거슬러 올라가 탑산리(塔山里)와 이어졌다.

따라서 입포의 배후습지 매립은 지역 주민의 마을 형성 의지와 함께 근산항 개항과 시기를 같이하여 금강 연안의 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4) 포구의 수산물 반입과 객주의 출현

입포 포구로의 수산물의 반입과 유통 증가는 입포 지역 변화의 접화 역할을 하였다. 입포에 조기의 반입 증가 요인으로 여말부터 가묘의 제사가 시행되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종법시행에 따라 제사가 일반화됨에 따라 조기가 제수용품으로 소비되고, 서해에 어획량이 많으며, 식탁에서 조기 찌개와 굴비 등 용도가 다양하여 어물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수산물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다에 나아가 조업을 하려면 장비 구입이나 출항에 부수되는 물품이 필요하여 많은 자금 조달이 요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포구 지역은 어로 자금을 전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수산물 수요 증대에 따라 많은 양의 수산물이 생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로자금 조달은 당시 가장 큰 문제였다. 오늘날과 같은 금융기관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규모의 어로자금 조달은 당시 상업자금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객주와 여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말에 수산물 거래가 활발하였던 마포(麻浦), 강경(江景), 원산(元山), 마산(馬山), 법성포(法聖浦) 등지에는 많은 객주가 있었으며(박원선, 1968, 13-45), 이들은 어민들에게 어로자금을 전대해 주고 이자와 어물 판매 수수료를 고리로 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포구의 경제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이들은 어로 현장에서 생선을 수매하거나 전대를 미끼로 어획물을 부당한 염가로 독점적으로 매수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역할은 어민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수산물 생산에는 도움을 주었다(김일기, 1988, 14).



그림 5. 1930년대말 입포천(1:50,000)

출처 : 朝鮮總督府, 1937.
주 : 축적을 1:10,000로 확대함.



그림 6. 2013년의 입포천(1:50,000)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2.

2. 일제 강점기 이후 입포 포구 취락

1) 입포 포구 취락의 형성기(1910~1929)

(1) 개간의 태동

취락의 입지는 초창기에 자연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에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촌락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공간적 맥락의 고찰이 중요하다. 촌락의 형성은 비교적 오랜 기간의 시기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시기상에서의 형성 특징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맞물려 설명되어야 한다. 공간적 맥락에서의 고찰은 촌락의 분포 패턴과 관련이 있다. 촌락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1차적으로 지형과 기후 등의 자연 환경에 따라 결정되고 2차적으로 사회 및 경제 활동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입포 촌락의 형성의 태동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개간 초기에 가옥이 두 채뿐이었던 지역이 변화의 탄력을 얻게 된 것은 나무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점차적으로 마을에 어선의 출입이 많아지면서 서부터이다. 입포는 유입된 어물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920년대에 다른 지역에 어물의 집산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강경으로부터 입포로 들어온 소금도 포구의 기능을 크게 강화시켰다. 또한 미곡운반선이 출입하게 됨에 따라 포구취락은 하천유역의 결절지로 발달하였다.

외지의 생선배가 입포 포구로 들어오면 자연 제방을 따라 길게 배를 정박하고 생선의 하역 작업을 하였다. 또한 입포 포구로 들어오는 여객선이나 나룻배도 별도의 선착장이 없이 용인산과 가까운 자연 제방에 배를 대고 여객을 하선시켰다.

입포에 어선의 출입에 따른 상업적 기능 발달은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가중시켜 상인이나 번영회로 하여금 개발의 당위성을 가지게 하였다. 입포의 개간과 취락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1913년경 입포천과 용인산 사이에 특히 입포천 쪽으로 택지가 조성 되고 가옥이 점차 들어서게 되었다. 마을 주변의 농경지 개간도 택지 조성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입포 셋강을 따라 개간된 농경지는 일본인 '식전(植田)이라는 사람에 의해 주도 되었다.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점유된 국유지는 1920년 이후부터는 일본 이민과 식민자들에게 불하하도록 하였다.

하입포 마을은 배후에 낮은 구릉성 산지와 전면에 셋강을 두고 있어 전통 촌락의 입지인 배산임수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나 남동쪽으로 금강을 두고 있어 내륙의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와는 다르다. 기능체들은 배후 산지의 능선에서 셋강 쪽으로 보아 능선 남쪽에 면사무소, 순사주재소가 분포하고 있었다.

입포 포구 연안의 대부분의 농경지는 배후습지를 개간한 논이며, 이로 인해 금강 연안선이 단조롭게 되었으며 자연 상태의 포구 형태는 변형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여군 총화면 가신리 수리조합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한 후에 자신들의 신변 안전과 치안 유지가 필요하여 주재소를 설치하였다. 입포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면에 헌병 주재소를 두었다. 원래 헌병은 군인을 대상으로 규율을 유지하고 수사 활동을 하는 군대 경찰이다. 그런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은 것이다. 헌병은 치안뿐 아니라 호적 사무, 일어 보급, 전염병 예방, 강우량 측정, 모지 단속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일을 담당하였다(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48-49).

또한 입포는 군산으로의 미곡 중간 수집 기지였기 때문에 미곡 처리를 위한 도정공장(사진 6)과 미곡창고 등의 시설이 있었다. 입포 포구는 부여뿐만 아니라 홍산, 정산, 임천 등 내륙지역의 식량수탈 기지의 거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도정 시설이 분포하였던 것이다. 입포는 양화면 행정을 수행하는 면사무소가 위치하여 행정중심지와 수상교통에 따른 여객 운송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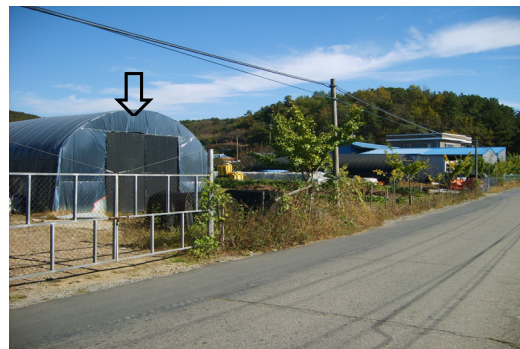


사진 6. 입포 도정 공장터

출처 : 2006. 10. 30. 촬영.

주 : 도정 공장은 화살표 아래 비닐하우스 부근에 있었지만 광복 후에 헐리고 밭으로 이용하고 있음.

(2) 농업 정책과 입포의 영향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과정적인 절차를 중시하였다. 식민 지배를 견고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의 정책 추진은 당시 일본 국내 사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광업과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미곡과 같은 농산물 증산에도 노력하였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 변화에 대한 그들의 욕구 충족 때문이었다. 일제가 미국, 면화의 생산을 높이려는 의도는 일본 내에서 1차 산업 부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정부는 1920년부터 미곡증산 장기계획을 수립 실시하였다(신용철, 1988, 217). 이러한 일련의 한반도에 대한 농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하구에 위치한 군산은 미곡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고 입포를 포함한 금강 연안도 촌락을 형성하면서 경지로 개간되어 갔다.

1925년부터 1930년 사이에 일제가 산미증산계획 등 농업정책을 통해 한국을 식량기지와 하여 곡창지대의 쌀이 미국적출항에는 정미공업과 양조공업이 더불어 발달하고 이곳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군산의 경우 12.1%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냈다.

입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개간 취락이다. 지역공간 관계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공간관계라는 개간지에 문화경관이 조성되고 인간의 주거생활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공간상에 형성된 공간상호관계에 의해서 지역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의미로 파악하였다(남궁봉, 1983, 205). 입포의 지역공간 관계를 살펴보면 도로 조직이 이루어지고 중심취락은 상입포에서 하입포로 점차 변화되었다. 지역주민들의 기초수요에 부응할 교육, 의료, 행정 및 각종 서비스 시설 등이 지역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입포의 취락 분포는 금강 범람원의 배후습지인데 자연상태의 습지에 취락이 분포하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홍수 시에 가옥 침수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간 택지는 매립 복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토는 주로 택지 용도인 곳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마을의 배후로 삼아 경지로 개간하였다. 복토에 필요한 흙을 공급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변의 산지에서 구하게 되었다. 또한 취락 형성 장소는 주변의 다른 장소보다 금강과 셋강에서 퇴적 물질의 공급이 많아 약간이라도 충적되어 다른 곳보다 고도가 높았다. 입포의 매축공사는 마을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

선 홍수 시 금강의 범람 피해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피수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남당산 기슭에서 지류 입포천과 금강 연안에 더욱 접근하여 가옥이나 기능체들이 분포하도록 하여 입항하는 어선이나 여객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였다.

(3) 취락의 형태와 경관

입포 지역의 전통적인 가옥은 진흙과 목재를 사용하여 지어졌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취락 구조개선 사업이 시행되면서 신가옥의 건축 재료는 벽이나 담은 시멘트 벽돌로, 지붕은 슬라브, 기와, 양철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가옥의 경관은 크게 변화되었다. 여기에 시대의 변천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촌락의 형태는 그것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의 자연적 기초,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조건, 주민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오홍석, 1983, 445).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촌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집촌은 경지가 연속해 있어서 경작하기 쉬운 곳, 산록, 해변, 주요 가로수로를 따라 성립한다(홍경희, 1998, 176). 한 지역에서 간선도로는 지역의 중심을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이다. 주요 도로변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가촌의 형성 발달은 간선도로의 접근성을 이용하려고 기능체의 배열이 나타나며, 기능체가 도시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촌은 그 지역에서 중심성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가촌은 주위의 지형, 경지, 자원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에 의하여 그 형태가 특징지어진다(최영준, 1984, 57).

가촌을 형성하는 요소와 형성 배경은 지역마다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촌을 형성하는 중심 요소는 간선도로, 기능지역, 주택지역, 시장, 경지 등을 들 수 있다. 가촌에는 저위 서비스 중심지 기능인 각종 상점이 있어 주변에 재화를 공급해 주며 그 외에도 관청, 학교 등이 있어 가촌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가촌의 형성과 분포는 도로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기능들은 생산 활동과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가촌의 형성은 자연 발생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고 중심도로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가촌은 서비스 산업과 밀접한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는 촌락 형태로 그 지역의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포의 중심도로는 국도와 연결되어 있어 타지역과의 연결이 용이하며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중심도로는 가촌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도로의 양편에는 공공 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능체들이 분포하여 기능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의 경관을 보이기도 한다. 기능지역의 배후에 주택지역이 있는데 중심도로에서 멀어질수록 그 밀도가 낮아진다. 주택지역의 외부에는 경지, 하천, 산 등이 있으며, 경지는 주로 논과 밭으로 이용된다. 가촌의 기능지역과 주택지역 사이에는 시장이 입지하며, 이곳에는 정육점, 식당, 주점, 잡화점 등의 상설 점포가 분포하고 있다(그림 7).

가촌은 공공행정기능, 교육기능, 상업기능, 제조업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업기능은 음식점, 잡화점, 다방, 주점, 아이용원, 정육점, 수리점 등이 있으며, 가촌에서 전체기능 가운데 이러한 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기능체들은 처음에는 중심거리부터 채우고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친

다. 기능체들은 원칙적으로 접근도 및 최소요구치 그리고 주민의 요구정책 등을 고려해서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공공행정·교육기능은 면사무소, 지서, 예비군중대, 우체국, 단위농협, 초등학교, 각종 교습소 등이 주류를 이룬다. 공공행정·교육기능 가운데 면사무소·우체국 등은 중심도로변에 입지에 있는 반면 지서, 소방서 등은 모두가 중심도로에 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농협창고 등은 대부분 중심도로에서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제조업 기능체는 방앗간, 목공소, 벽돌공장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대체로 취락의 주변부에 위치하나 방앗간과 목공소는 시장 부근에 분포하고 있다(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57-58).

가촌은 집촌의 범주에 속하지만 괴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가촌의 발달은 1차적으로 도로의 의존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집촌은 일반적으로 취락 내의 도로가 불규칙하고 가옥이 덩어리 모양으로 모여 괴촌을 이루고 있으나, 가촌은 비교적 직선의 중심도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입포의 간선도로는 한산과 임천을 잇는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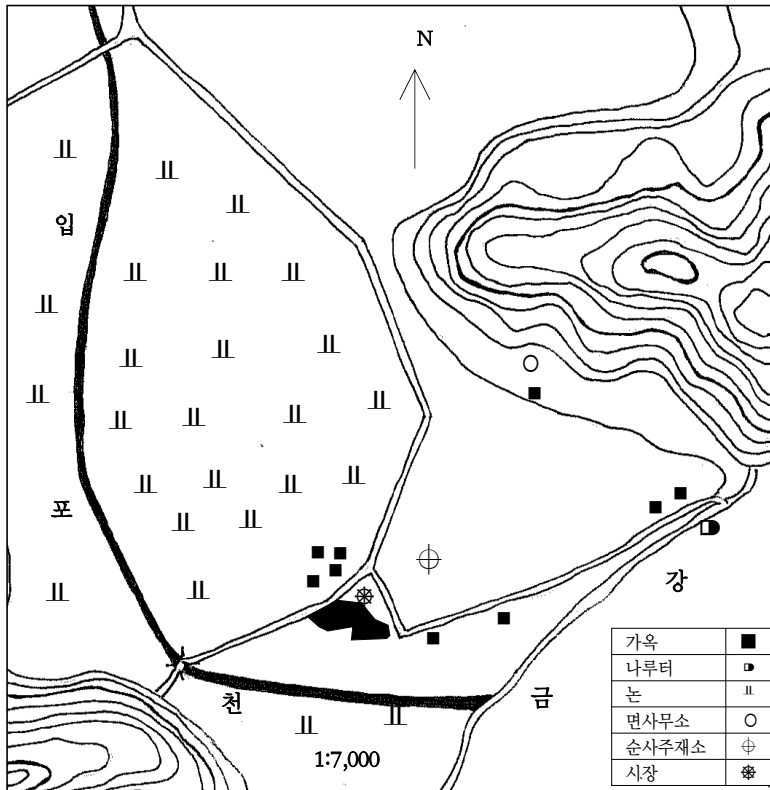


그림 7. 1920년대 입포의 기능 지역 분포

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뻗어오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는 입포천을 바라보고 남서쪽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하나는 나루터를 향하여 남동쪽으로 가다가 직각으로 꺾여 북동쪽으로 진행하여 나루터에 닿아 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입포와 제성 간은 두 곳을 오고가는 나룻배가 이어주었다. 금강 가항수로에 간선도로가 접속되는 입포 나루는 하천 건너 전라북도 제성 나루를 통해 장날이면 장꾼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너왔고 장은 주변 지역에 재화를 공급하고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등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옥은 촌락을 형성하는 가시적인 문화경관 요소이다. 촌락의 형성 과정에서 그 속에 지역 주민의 정서, 가치관 등이 내재되어 가시적인 문화경관으로 발현된다.

한 지역에서 주민의 생활영역에 스며든 문화요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 생활양식은 생활의 총체적 전체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는 가시적인 것도 있고, 비가시적인 것으로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한 지역 공간상에 경관으로서 문화특성을 나타내주는 가시적인 문화요소는 촌락의 구조, 가옥의 내외부 형태, 건축 양식, 건축 재료, 경지 계획 형태, 도로 형태를 들 수 있으며, 비가시적인 문화요소로는 주민의 가치관, 역사적 전통, 규범, 생활 감정, 사물에 대한 인식 태도 등과 기존의 사회 구조, 사회 집단 사회화 과정, 생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문화요소는 어떤 지역의 문화경관을 조성하는 데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석천이찬박사회갑기념논집간행위원회, 1983, 499).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공간이 협소하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교통수단으로 우마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도로가 우마차 이동이나 사람의 이동 정도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도로로써 그 기능이 충분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입포 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는 우마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의 도로에는 우마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노퍽이었다. 촌락의 평면구조로 볼 때 입포의 가로망은 불규칙적이다. 가옥은 도로를 따라 배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입포는 매립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위의 자연적인 길을 따라 가옥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로망은 불규칙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도로는 그 시대의 중심지를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내부 구성요소이다. 어느 시대가건 그 시대에 가장 변화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주요한 관공서 등이 있는 지역의 핵심부가 도로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의 확장과 축소 그리고 도시 중심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도로망은 선형, 나뭇가지 형, 불규칙한 그물형, 격자형, 고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준표, 1998, 145-146). 이 중에서 입포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망은 선형과 불규칙한 그물형이다. 선형은 도로가 길게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를 가지며, 규칙적인 그물형은 도로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도로패턴으로 위치 및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다. 도로는 지역 간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의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이다. 지역 내부를 구성하는 각종 기능체들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쉽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얻기에 편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종 기능체들이 도로를 따라 입지하게 된다.

교통수단이 우마에 머물던 시대에 노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단순히 통로로써 이용되면 만족되었다. 도로의 연장으로 하천을 건너야 하는 곳은 나루의 기능이 있었다. 도로 교통의 발달로 수운이 쇠퇴하고 교량이 건설되면서 나루는 나루터 화석으로 남게 되었다.

(4) 행정 기관의 이전

입포에 취락이 형성되고 점차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포구의 기능이 강화 되었다. 또한 중심지 기능이 뚜렷해지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이전해오거나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면제가 도입되면서 초기의 면소재지는 1592년경 수원 백씨가 입촌한 내성리(內城里)에 위치(부여군지편집위원회, 1987, 1244-1247)하여 행정 중심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맞아 서해안에서 고기 실은 배가 들어오고 상인들이 들어와 입포가 유명해지면서 점차 발전하여 가는 그곳으로 소재지를 이전하게 되었다(그림 8). 특히 당시 그 지역의 여론은 면사무소를 시장이 번영하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요인이었다.

입포에서 한 번에 보통 50여척이 입항하여 생선을 거래하였고, 그곳에 들어온 선주와 어부들은 1~2주일 머물다 다시 바다로 어업을 하러 나갔다. 입포에 어선 입항

이 많아짐에 따라 어물 거래량의 증가로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자

1920년경에 내성리에 있었던 면사무소가 입포로 이전하게 되었다. 셋강~용인산~본류 사이의 마을은 처음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고, 1885년경에 인근 남당에서 나루의 권한⁶⁾이 입포로 이전하면서 마을 형성의 기원을 이루었다.

지역에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기관이 기능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행정기관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이렇듯 도로나 포구가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해지면 그러한 교통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동하기 쉽다. 입포는 포구로 나루의 기능을 겸한 교통의 요지로 발달하였다.

면사무소는 내성리⁷⁾에서 입포로 이전한 후 세 번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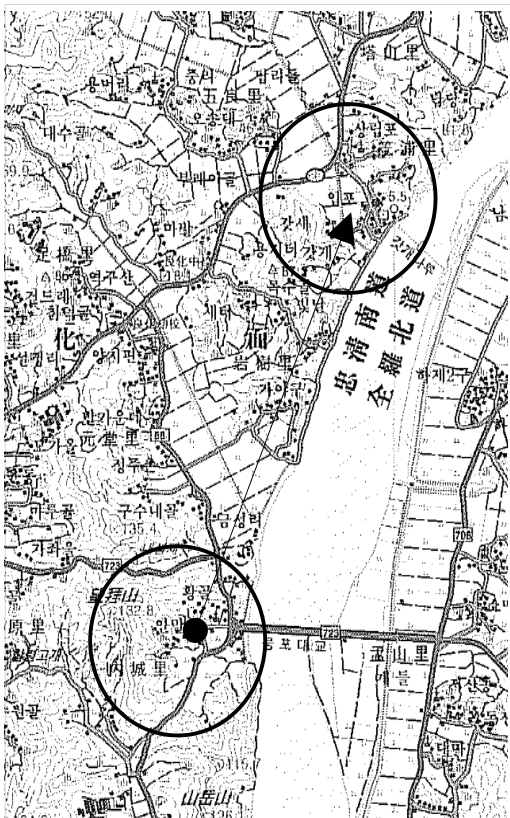


그림 8. 면사무소의 이전

출처 : 2006년 10월, 부여군 양화면 하입포리 김팔만옹(83세)의 제보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하였다. 맨 먼저 현재의 양화 교회 자리에 위치하였다가, 현재의 의용소방대 자리로 이동한 후 맨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치에 머무르게 되었다.

(5) 시장의 형성

초기에 입포 시장은 선박 출입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일종의 '갯벌장'이었으므로 상설점포보다는 노점상이 많았다. 입포 시장은 1910년대 초기에 이르러 시장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는 달리 강경 포구에서 개시되었던 시장은 조선말부터 서해안의 어물과 금강 연안의 쌀을 집산하여 개항과 더불어 크게 번창하였다. 특히 5~6월 성어기에는 갈치, 조기 등의 수산물을 운반하는 운반선과 어선이 많이 운집하여 중부지방에 어물을 비롯한 각종 상품을 공급하였다(김일기, 1988, 90). 이처럼 강경 시장은 일찍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금강 유역에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한 후 1910년대 초에 시장제도의 정비를 위한 시장규칙을 발표하였다. 1914년에 총독부는 시장규칙을 공포하여 시장을 그 관리 하에 두었다.

1929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사 자료를 보면 입포 시장의 개시일이 4, 9일로 나타나 있다(표 2). 이것은 이미 1927년에 4, 9일에서 3, 9일로 시장 개시일이 변동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사 자료를 작성할 때 직접 야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920년대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농촌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러한 변화는 장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장시의 네트워크는 무역의 확대를 위해 필요했다. 이것은 장시의 성장을 촉진했다. 농촌에 있어

표 2. 부여군의 시장 현황

부군	시장명	위치	공사설별	종별	개시일
扶餘郡	邑內市場	扶餘面 官北里	공설	第一號	5, 10
	田津市場	扶餘面 楮石里	공설	第一號	4, 9
	恩山市場	恩山面 恩山里	공설	第一號	1, 6
	鴻山市場	鴻山面 鴻山里	공설	第一號	2, 7
	笠浦市場	良化面 笠浦里	공설	第一號	4, 9
	林川市場	林川面 郡司里	공설	第一號	5, 10

출처 : 朝鮮總督府, 1929, 118-124.

서의 재화의 교환은 정기시장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업기관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이다(안병식 등, 1989, 304-305).

강경시장은 매월 4, 9일(월6회)에 개시하였다. 1909년 조사에 의하면, 강경시장은 강경상정(江景上町) 시장과 강경하정(江景下町) 시장으로 분설하여 운영되었다. 상정시장은 매월 4, 14, 24일(월 3회), 하정시장은 9, 19, 29일(월 3회)에 개시하였다⁸⁾(그림 9).

강경 시장과 마찬가지로 입포시장은 1914년부터 매월 4, 9일(월 6회)에 개시되기 시작하였다⁹⁾. 그러다가 입포 시장 개시일은 1927년에 기존의 매월 4, 9일에서 3, 8일로 변경되었다¹⁰⁾.

1914년에 입포에 시장이 개설되었지만 소규모의 난전이어서 주요 정기 시장으로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다. 입포에서 개간된 대지와 경지가 지적도상에 등재되었던 시기가 대부분 1913년경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1914년부터 정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92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입포 시장의 거래 실적이 여러 문헌에서 보이는 것도 입포의 본격적인 시장의 개설시기를 짐작하게 해준다.

1911년 금강 하류에 열렸던 정기 시장의 본포를 보면 입포는 아직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그 당시 입포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표 3). 당시에 임천 시장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입포는 임천 시장의 배후지 역할을 하였다.

입포 시장 개시일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입포 시장의 개시일이 1914년에 4, 9일 장

인데, 1927년에 3, 8일 장으로 변경되었다. 시장 개시일 4, 9일에서 3, 8일로 변동되었을 때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표 4).

입포 시장의 거래 품목은 의류, 신발, 농기구, 잡곡류, 생선류 등 다른 시장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 입포 주변의 정기시장은 1일 서천군 마산면의 신장, 2일 홍산장, 3일 입포장, 4일 임천장, 5일 부여장의 순서로 순환하면서 열렸다. 입포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은 주로 양화면이 주가 되었고, 마산, 한산, 홍산, 임천, 충화, 세도, 강경지역이었으며 그 외에 전북의 제성, 군산 등이었다. 입포 시장의 규모는 공식적으로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은 한 칸이며 한 칸의 실제 평수는 1평으로 기준하였기 때문에 총 45평에 이른다(그림 10). 그러나 시장이 설 때는 주변 공간이나 통로까지 물건을 펼쳐놓

표 3. 1911년 금강하류 주변의 정기시장

시장명	개시일	시장명	개시일
논산시장	5, 10	황등시장	5, 10
강경시장	4, 9	용포시장	1, 6
임천시장	5, 10	신장시장	3, 8
은산시장	1, 6	서천시장	2, 7
홍산시장	2, 7	군산시장	1, 6

출처 : 나도승, 1992, 332.

표 4. 1925년 금강하류 주변 정기시장의 개시일

행정구역	시장명	개시일	비고(허가일자)
부여읍 구아리	부여시장	5, 10	1916.
논산면*	논산시장	3, 8	
강경면*	강경시장	4, 9	
임천면 군사*	임천시장	5, 10	
은산면 은산리	은산시장	1, 6	1911. 4. 10.
홍산현	홍산시장	2, 7	1928, 1, 2.
양화면 입포리	입포시장	4, 9	1932. 6. 15.
익산군	함열시장	2, 7	
익산군	황등시장	5, 10	
익산군	용포시장	1, 6	
서천군 마산리	신장시장	3, 8	
서천군 삼산리	삼산시장	4, 9	
서천군 군사리	서천시장	2, 7	
장재동 영정*	군산시장	1, 6	

출처 : 이재하·홍순완, 1992, 104, 필자 일부 보완(*표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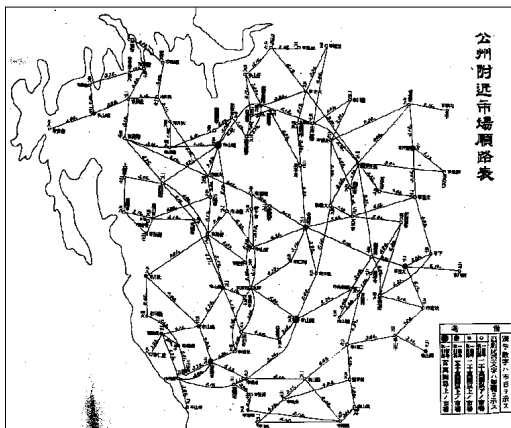


그림 9. 공주 부근 시장 순로표

출처 : 朝鮮總督府, 1929, 170.

그림 10. 시장의 평면 구조

출처 : 부여군 입포리 김팔만옹(83), 2006. 10. 20.의 증언.

주 : 네모 한 칸은 면적으로 1평에 해당함.



사진 7. 입포 장옥

출처 : 김민영·김종규, 2006, 123.

표 5. 부여군내 일제강점기에 개설한 시장

읍면	구분	장소	개시일	면적(m ²)	허가일자
부여읍		구아리	매월 5, 10, 15, 20, 25, 30.(말일)	7,934	1916. 3. 15.
규암면		규암리	매월 3, 8, 13, 18, 23, 28.	7,544	1936. 3. 3.
은산면		은산리	매월 1, 6, 11, 16, 21, 26.	5,167	1911. 4. 10.
외산면		만수리	매월 5, 10, 15, 20, 25, 30.(말일)	6,962	1925. 2. 3.
구룡면		논치리	매월 4, 9, 14, 19, 24, 29.	6,169	1931.10. 15.
홍산면		남촌리	매월 2, 7, 12, 17, 22, 27.	10,747	1928. 1. 2.
양화면		입포리	매월 3, 8, 13, 18, 23, 28.	3,676	1932. 6. 15.
임천면		군사리	매월 5, 10, 15, 20, 25, 30.(말일)	4,397	1930. 6. 15.

출처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586.

기 때문에 시장이 서는 범위는 120평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포 시장¹¹⁾의 장옥은 오른쪽에 1, 2, 3, 4, 10동이 분포하고, 왼쪽에 5, 6, 7, 8, 9동이 분포하고 있다(사진 7).

사진에서 멀리 보이는 나무가 서 있는 곳이 한산, 임천 등지에서 자동차가 장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이다. 시장에서 오른쪽 장옥 너머에 입포의 중심도로가 지나고 있다. 사진의 장옥이 있는 시장은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에 소재하는 시장이며 처음 개시되었던 시장은 사진의 왼쪽 장옥 너머에 있었다. 그곳은 장소가 비좁고 교통이 불편하여, 1932년 6월 15일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부여 군지편찬위원회, 1987, 586) 사진의 장소로 이전한 것이다. 시장의 전체 면적은 3,676m²로 장옥과 공중화장실이 차지하는 건평은 535.3m²이다(표 5).

입포의 정기 시장은 포구가 있어 수운교통의 요지이고, 면사무소, 주재소 등 공공 기관이 있는 곳으로 거래액이 10만원 내외 규모의 주변 지역의 경제 중심지이며 소수의 상설 점포가 도로를 따라 분포하며 정기 시장을 순회하는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14년경 시장은 4, 9일에 개시되었으나 1927년에 3, 8일로 변경된 이후에 입포의 3, 8일 정기 시장은 그대로 열리고 있었고, 외항으로부터 입항하는 생선 및 소금은 무시로 거래되었다. 그것은 충남 및 전북 일부 지역에 주로 거래 범위를 갖고 있었다.

(6) 접근성의 개선과 미곡 반출 기반 조성

1911년에 조선총독부는 도로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도로규칙 제정 이후 1915년과 1920년에 개정을 했으며, 1938년까지 시행하다가 동년 4월에 조선도로령을 제정하여 1945년까지 시행되었다. 도로규칙의 내용을 보면 도로 등급을 1등, 2등, 3등 및 등의도로의 4종류로 나누었다(정진원, 1991, 35-36). 입포의 취락과 연결된 중심도로는 도로규칙을 적용하여 유형을 구분할 때 등의 도로로 분류된다. 한산과 임천을 잇는 도로에서 분기하여 금강 포구로 연결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일제의 도로규칙 제정은 대도시부터 지방 중도시까지 도로를 표준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1929년 7월 1일부터 입포~서천 간 양방향으로 자동차의 정기통행이 시작되었다¹²⁾. 일제강점기에 입포의 자동차 출입은 시장과 포구의 이용과 관련이 깊다. 포구는 해산물이 풍부하게 집산하기 때문에 트럭의 출입이 많았다. 입포~서천, 입포~부여 간에 도로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여객용 버스는 입포로 하루에 두 번 드나들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신작로를 계획하고 시공하였다. 그것은 각 지방의 거류민과 상공인 단체 등이 도로건설에 참여할 때 난립이 우려되고, 북부의 산지 지역처럼 철도 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로 건설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일련의 이러한 신작로

의 개설은 철도와 항구 간 및 철도와 도로 간의 간극을 채워 식민 지배의 수단적 목적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¹³⁾.

인근 지역과 입포 사이의 도로와 수운 교통에 의한 접근성의 향상은 외해의 수산물과 내륙의 곡류에 대한 집산기능을 강화시켰다. 특히 입포는 내륙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곡물 수집을 위한 곡물검사소와 미곡통제조합 등이 설치되었다.

금강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충청남도 곡물검사소본소인 강경에 집하여 검사가 완료되면 범선이나 증기선을 이용하여 군산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금강 연안 지역 중 곡물검사소는 1915년 2월에 강경에 제일 먼저 설치되었다¹⁴⁾.

입포의 곡물검사소는 양화, 임천, 홍산 등지에서 생산된 곡물을 입포 포구를 통하여 군산항으로 반출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다. 곡물검사소는 1923년부터 1927년까지 충청남도 소속하에 독립적으로 입포에 두었다. 충청남도 소속하에 1928년부터 곡물검사소는 입포지소로 그 격이 낮아졌다가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 소속하에 군산지소 입포출장소로 변경되어 194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여산 8군이라고 부르던 부여, 예산, 청양, 서천, 보령, 논산, 공주, 연기 등지의 곡물이 집하여 군산을 통해 공출되는 공출항의 기능도 담당하였다(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572). 입포의 곡물검사소의 소속 변천은 다음과 같다(표 6)¹⁵⁾.

일제강점기에 입포는 곡물검사소가 두 개 있었다. 한 곳은 건평 30평 규모로 함석지붕을 한 단층 건물이었다, 다른 곳도 비슷한 규모의 건평과 함석지붕의 2층 건물이었다. 곡물검사소의 기능은 광복 후에 사라지고 그 장소에 있던 건물이 헐리고 개인집이 들어섰다. 입포검사소 소장과 4~5명의 사무원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입포 곡물검사소는 부여 일원과 충화, 임천, 홍산, 옥산, 은산, 청양을 관할하였다. 곡물검사소에서 실시한 검사 대상 곡물은 벼와 그것을 1차 도정한 현미였다. 곡물검사에 응하는 곡물 수집은 곡물상이나 농민이 직접 가지고 온

표 6. 입포의 곡물검사소의 소속 변천

연 도	소 속	비 고
1923~1927	충청남도 입포곡물검사소	
1928~1932	충청남도곡물입검사소 입포지소	
1933~1941	조선총독부곡물검사소 군산지소 입포출장소	

출처 : 朝鮮總督府, 1923-1928-1933.

표 7. 벼검사 성적의 추이(단위 : 천가마니, %)

연도	검사총수	1등	2등	3등	등외
1935	4,421(100.0)	1,221(27.6)	2,391(54.1)	560(12.7)	249(5.6)
1936	17,507(100.0)	1,634(9.3)	7,119(40.7)	7,169(40.9)	1,586(9.1)
1937	24,205(100.0)	415(1.7)	4,735(19.6)	13,499(55.8)	5,557(23.0)
1938	35,651(100.0)	707(2.0)	6,562(18.4)	20,859(58.5)	7,523(21.1)
1939	32,851(100.0)	97(0.3)	3,170(9.6)	20,720(63.1)	8,863(27.0)

출처 : 朝鮮總督府, 1941, 253.

곡물이었다. 곡물검사의 중요한 목적은 곡물의 품질을 향상유지시키기 위해서였다. 검사 절차는 벼는 적재 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검사원이 출장하여 실시하고, 현미의 경우는 도정공장으로 출장하여 검사하였다. 보통 1일 검사 대상 수량은 400포대 정도였다¹⁶⁾.

금강 하류 유역에 미곡통제조합¹⁷⁾은 논산, 서천, 군산에 두도록 지정되었다.

벼검사제도는 1934년 조선인검사규칙이 제정되면서 희망검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1935년 조선곡물검사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산간오지의 지주 또는 농민의 집합미에 대한 희망검사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지정장소로부터 반출되는 벼는 강제검사도 병행되었다.

1946년 9월 26일 곡물검사규칙¹⁸⁾을 공포하여 곡물을 관리 감독하였다.

총독부가 제시한 벼검사의 목적은 ① 보증제도 운영에 의해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② 산미개량을 촉진하여 미곡업자에게 질 좋은 원료벼를 공급하며, ③ 규격의 통일과 포장미의 유통으로 거래상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④ 미곡의 저장장려를 위한 미곡통제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벼검사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1930년 후반에 이르러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936년에 있어서 수검자 구성은 농민의 비중이 극히 낮고, 미곡상과 중매인에 의한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1939년에 수검자 구성의 변화는 미곡상과 중매인 비중이 급감하고, 지주의 비중과 공판 비중의 증대를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벼검사제도의 실시 초기에는 벼검사 그 자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중간이득을 목표로 미곡상과 중매인 등이 대거 진출하여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총독부의 분명한 정책적 지향 하에 그들의 중간

이득 취득행위가 제약되어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고, 대신 공동판매와 지주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것은 벼검사 본연의 모습인 보증제도에 의한 농민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목적을 일정한 정도로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벼검사제도의 도입은 지주와 소작 관계에서 오히려 소작인에게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그 이유는 지주가 소작농에게 국가의 검사 기준에 맞는 질 좋은 벼의 생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벼검사 강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7). 1935년과 1939년 두 해를 비교해 보면 1등의 비율은 27.6%에서 0.3%로, 2등의 비율은 54.1%에서 9.6%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3등과 등외의 비율은 각각 12.7%에서 63.1%로, 5.6%에서 27.0%로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이다. 이는 결코 이 사이에 조선에서 생산된 벼의 품질이 급격히 낮아진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며, 인위적으로 벼검사가 강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전강수, 1993, 337-347). 이러한 수검자의 구성 현황이나 강화된 벼검사의 적용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입포도 받았다.

III. 결론

입포 포구는 백제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근거지로 활용되어온 금강을 모태로 형성되었다. 포구는 나루 기능과 함께 하천의 수운 교통이 발달하여 취락이 형성되고 발달과 쇠퇴의 자취를 가지고 있어 지리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여기서 포구취락의 접근은 19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 이전의 취락, 일제 강점기 이후 취락의 형성기(1910~1929)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일제강점기 이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885

년경 김해김씨가 입촌하여 촌락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웃 남당진의 나무가 입포로 이전에 오고, 나무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사공이 거주하는 가옥 한 채가 최초로 금강에 인접한 용인산 기슭에 지어졌다. 점차적으로 입포에 생선배가 유입되면서 입포천 주변과 금강 연안에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99년 군산항의 개항은 금강 수운의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었고, 외항과 내륙의 연결지점인 입포 포구의 역할 증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입포 포구로의 수산물의 반입과 유통 증가는 이 지역의 변화에 점화 역할을 하였다.

둘째, 포구 취락의 형성을 살펴보면 입포 지역이 변화의 탄력을 얻게 된 것은 나무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점차적으로 마을에 어선의 출입이 많아지면서부터이다. 입포 취락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취락이다. 입포는 금강 연안의 배후습지를 매립하고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나무 기능은 입포의 시장 기능이 발생하면서 더욱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점차 생선배가 들어가 활기를 띠면서 상업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초창기의 면사무소가 1920년경에 양화면 내성리에 있다가 입포에 어선 입항이 많아져 어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입포로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입포 시장은 1910년대 초기에 이르러 시장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난전의 형태였지만 1914년부터 정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1911년에 총독부는 도로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인근 지역과 입포 사이의 도로와 수운에 의한 접근성의 향상은 외해의 수산물과 내륙의 곡류에 대한 집산 기능을 강화시켰다. 또한 일본의 국내 사정에 따른 곡물 수탈 정책은 입포의 미곡 집산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입포에 곡물 검사소가 설치되고 양화, 입천, 홍산 등지에서 생산된 곡물은 입포 포구를 통하여 군산을 걸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註

- 1) 금강 수운과 관련된 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나도승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공주금강권의 역사지리」(1992)를 참고 하기 바란다.
- 2) 1914년 군·면폐합 시기 일제는 행정상의 필요를 앞세우며 자연촌락을 강제로 해체한 뒤 이른바 행정리(行政里)를 형성하는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당시 적으면 2~3개 많으면 4~5개의 자연부락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리를 형성하였다. 입포리의 경우 군·면폐합전의 임천군 대적면 상입포리, 하입포리, 임천군 지서면 초일리를 급조하여 행정리로 만들었다.

- 3) 제보: 2006. 10. 20., 부여군 양화면 하입포리, 김팔만(83세).
- 4) 제보: 2006. 10. 20., 부여군 양화면 하입포리, 김팔만(83세).
- 5) 제보: 2006. 10. 20., 부여군 양화면 하입포리, 김팔만(83세).
- 6) 1885년경에 입포에 거주하는 감팔만옹(83세)의 조부가 인근 남당진에서 나무의 권한을 입포 이전하였다.
- 7) 입포로 면사무소를 옮기기 전에 내성리에 있었던 것은 오늘날과 같이 별도의 사무소가 아니라 송영태라는 사람의 개인집 사랑채였다. 이 때 사무를 보았던 사랑채는 현재까지 그 자손이 소유하여 살고 있다. 면사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 반대가 적었던 이유는 당시에 근무했던 면장(이상재)과 면회계(송영태)가 그 동리 사람이었고 그들이 입포에 개시된 시장 주변에 투자가 용이했기 때문에 이전을 구태여 반대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 8) 朝鮮總督府, 1919.
- 9) 朝鮮總督府, 1919.
- 10) 동아일보, 1927. 12. 15.
- 11) 입포 시장은 1914년 매월 4일에 시작하여 5일마다 열리다가 1927년 매월 3일에 시작하는 장으로 변경되었다. 1914년부터 1932년 6월 14일까지 입포 구 시장에서 장이 섰으나 1932년 6월 15일부터 현재 위치로 옮겨 시장이 다시 개시되었다.
- 12) 中外日報, 1929. 6. 30.
- 13) 매일신보, 1911. 2. 5.
- 14) 대전일보, 1983. 6. 30.
- 15) 朝鮮總督府, 1923·1928·1933.
- 16) 제보: 2006. 10. 30, 부여군 양화면 하입포리 김팔만(83세).
- 17) 미곡자치관리법 제51조 1항 “규정에 명령으로 지정하는 곳에 미곡취급업자는 미곡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에 의해 미곡통제조합의 지정지는 경기도·경성부, 인천부, 충청남도·논산군 강경읍, 서천군 마

동면, 전라북도-군산부, 김제군 김제읍, 전라남도-목포부, 여수군 여수읍, 경상북도-대구부, 김천군 김천읍, 경상남도-부산부, 마산부, 황해도-해주부, 평안남도-평양부, 진남포부, 평안북도-신의주부, 함경남도-원산부, 함흥부에 두었다.

18) 조선경제일보, 1948, 농무부령 제3호 '곡물검사규칙' 공포, 곡물검사규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곡물조사, 제3조 검사의 면제, 제4조 검사에 관한 소속, 제5조 수수료, 제6조 곡물의 포장, 제7조 예비검사, 제8조 등급, 제9조 불합격품의 처치, 제10조 증인, 제11조 수출, 제12조 수입, 제13조 상표, 제14조 검사관증표, 제15조 곡물검사에 대한 조력, 제16조 권한의 위임, 제17조 저축법률의 폐지, 제18조 시행기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12, 1:50,000 지형도, 한산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12, 1:5,000 지형도, 한산 046 도폭.
 김민영·김종규, 2006,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 지역의 근대 상업의 변용: 강과 수운의 사회경제사」, 선인.
 이재하·홍순완, 1992, 「한국의 장사: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민음사.
 김일기, 198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김종혁, 2001,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김충환, 1992, “미호천 유역의 촌락입지와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나도승, 1992, 「공주금강권의 역사지리」.
 남궁봉, 1983, “동진강하구 간척촌에 관한 연구: 전북 김제군 광활면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7-212.
 박원선, 1968, 「객주」, 연세대학교출판부.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9,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3집, 부여군편」.
 부여군지편찬위원회, 1987, 「부여군지」.
 석천이찬박사화갑기념논집간행위원회, 1983,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석천 이찬박사화갑기념논집」.
 신용철, 1988, “일제하의 인구증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논문집, 21, 213-229.
 안병식·이대근·中村哲·梶村秀樹, 1989,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오홍석, 1983, 「촌락지리」, 교학사.
 이준표, 1998, 「도시와 건축」, 태림문화사.
 전강수, 1993, “식민지기 조선의 미곡저장장려정책과 벼 검사공동판매제도: 1930년대를 중심으로,” 경영경제, 10, 효성여자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307-357.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 촌락명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9, 59-79.
 최영준, 1987,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 35, 대한지리학회, 49-82.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법문사.
 朝鮮總督府, 1912,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朝鮮總督府, 1919, 「朝鮮地誌資料」.
 朝鮮總督府, 1923,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28,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29, 「朝鮮河川調査書」.
 朝鮮總督府, 1933,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37,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41, 「朝鮮의 農業」.
 大東輿地圖, 1865
 大田日報, 1983. 6. 30.
 東亞日報, 1927. 12. 15.
 每日新報, 1911. 2. 5.
 中外日報, 1929. 6. 30.
 교신 : 방갑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ildasiil@hanmail.net)
 Correspondence : Gabju Bang, 314-701, 182 Shinkwan-dong, Kongju-si, Chungnam, Korea,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ildasiil@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29일
 투고확정일: 2012년 10월 30일